

# 불교문화 해외인들이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문화와 문화상품의 해외 나들이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52억의 개런티를 받은 파이프 프로덕션의 버벌 대사장이 동적과 소리만으로 공연하는 비언어극 뮤지컬 '난타'가 9월부터 미국순회공연에 나설 예정이며, 극단 에이프의 뮤지컬 '명성황후'도 가을 겨울 일본, 영국 공연을 추진 중이다. 또 극단 학현의 비언어극 '지하철 1호선', 극단 세실의 연극 '산뜻길' 등 우리 연극들도 대거 해외 공연에 나선다.

이같은 문화계의 바람은 교계도 무관하지 않다. 올해 불교 관련 공연과 전시들이 해외에서 다수 이뤄질 예정이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담은 영산재가 일본에서 공연된다. 영산재보존회는 10일 서울 봉원사에서 일본 국립극장 관계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28일 경 일본 국립극장에서 공연

- 뮤지컬 '팔만대장경' 5월, 미국
- 영산재 日 국립극장 공연 7월, 일본
- 이선옥 선무 '색즉시공' 7월, 호주

한다. 이 공연에는 무형문화재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 30여명이 참가해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다.

28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선무(禪舞)가 이선옥씨도 해외공연에 나선다. 행선(行禪)의 원리 그대로를 춤으로 옮겨 춤을 통해 자신을 관(觀)하는 선무의 창시자인 이씨는 오는 7월 경 호주 타즈메니아 페스티벌에서 '색즉시공 2001'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서 열리는 세계 무용 위크숍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도 우리

불교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포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행자 우리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해외에 직접 나가 우리 문화의 장을 펼쳐 보려는 것이다. 종단협 김석오 과장은 "현재 한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교 공연, 퍼포먼스, 문화체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회의를 거쳐 3월경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재외문화원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펼친다. 사



2001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상품의 해외 나들이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물놀이, 가야금 등 우리 전통음악공연과 우리영화상영, 한국음식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여는 것. 특히 오는 5월 15-16일 미국 패사디나에서 세계적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테마로 한 뮤지컬 '팔만대장경'을 공연한다. 문화관광부는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문화청 및 국립도쿄박물관 함께 '한일문화청 상호 교류전'을 3월-7월 서울과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열 계획이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앞산이 겨울햇살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에 빠져 있다. 그 위의 창공으로 새 한 마리가 직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부동의 정진과 경쾌한 비상. 이제 봄기운이 들고 동안기도 끝났으니 많은 남자들이 운수행자를 떠날 것이다. 선수령은 정수와 동공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삭발한 머리에 삿갓을 쓰고 붓짐에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여행에서 인생과 예술의 의미를 추구한 방랑시인이 있었다. '해와 달은 영원한 여행객이요. 오고 가는 세월 또한 나그네이다. (...) 어느 해부터인가, 나도 조각구름을 들고 가는 바람결에 이끌려 방랑하고픈 생각이 끊이지 않아. 저 먼 변방의 해변을 정처 없이 거닐다가...'

깨달음의 경계를 노래한 선사들의 계승의 경지를 '하이쿠'라는 17자의 짧은 민중시 형식 속에 담아내어 독특한 미학의 세계를 구축한 17세기 일본의 시인 바쇼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여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절과 자연의 명소를 찾아 3권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썼는데, 그 중

에서 '오쿠의 오솔길' (奥の細道)은 현대 일본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고전이 되었다. 세속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바쇼는 자신의 예술관을 이렇게 들려준다.

'시와 그림과 다도를 관통하여 흐르는 근본정신은 하나이다. 그들과 더불어 하이쿠에 뜻을 두는 사람은 우주만물의 생성에 순응하고, 사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것을 표현해 간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 속에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우주의 무한한 생성의 힘에 순응하고 거기에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젊은 시절 임제종의 스님에게서 선을 배운 바쇼는 예술적 실천의 방편으로 시작(詩作) 여행에 일생을 바쳤다. 그 결과 탄생한 바쇼의 하이쿠는 근대 이후 일본이 세계에 수출한 유일한 문화상품이 되었다. 프랑스 상징주의로부터 영미 이미지즘을 거쳐 중남미 포스트모더니즘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하이쿠는 무한한 영감의 샘이 되어왔다. 그들은 이 책을 이렇게 평했다. '실안을 뜨게 해주고 육체를 가볍게 해주는 고요가 깃들은 책. 여행기이면서 집착 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여행은 '스스로와 이별하는 연습'으로 방화(放下)를 가르쳐 준다. 여행 중에는 존재의 연약함에 대한 감성이 예민하게 발현되고, 따라서 깨어지기 쉬운 실존의 불안정감을 쉽게 포착하게 해준다. 그럴 때 인간은 나무와 바위와 구름과 시냇물에서 묘한 동요(動搖)를 느끼며 교감을 가지게 된다. 바쇼는 여행 중 입석(立石)에서 마주친 신사의 정적을 이렇게 노래했다.

고요 속에서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울음소리.

■문학평론가

## 불교음악 '대중결에'

불음협 수시로 작은음악회  
삼음협 '아미타불' 재공연

지난해 초 불교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출범한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의 삼보불교음악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해 불교음악계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나섰다.

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윤문순)는 지난해 공연했던 오페라 '아미타불'을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용 찬불가집 제작에 착수해, 앞으로 전국의 법회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불교음악협회 이사장 변영규는 연중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불 수시로 열어 불자와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작은 음악회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불교음악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 찬불가 가운데 불자들이 애청하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불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불교음악협회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불교음악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불교음악 창작의욕을 고무하겠다는 포부다.

착박한 불교음악계의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계획으로 새해를 시작한 이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 '외국 관광객 맞이 소홀'

문화부, 국민관광의식 조사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93.1%)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관광사업 육성에 대해 동의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가 최근 한국관광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3.6%가 알고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로 '관광산업발전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 문화소식

35.6%를 꼽았다.

그러나 외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상태에 대해서는 국민 78.2%가 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방문부처에서 외국관광객 맞이 준비상태를 점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물음에는 친절의식, 질서의식 등 국민의식개혁(69.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교통문제해결(50.1%), 거리환경, 화장실 청결 등 청결한 공공시설(40.3%), 먹거리 늘리기 등 관광자원개발(1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7일부터 전국 1천 66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 '한국 향토문화자원' 발간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 개막에 맞춰 21세기판 <중국어 지승람>을 표방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이 출간됐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펴낸 이 책은 총 6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2,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232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 관광안내서와 달리 시군구의 인구 면적 등 지역현황, 문화예술단체와 예술행사, 지역 출신 예술인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켰다. 문화원연합회는 책 전체 내용을 CD롬으로 제작했으며, 홈페이지에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02-704-2311



김한길 문화부 장관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혜자 어린이와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 BBS '거룩한 만남' 500회 기념행사 1천여명 성황

불교방송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5백회 생일을 기념하는 특집 공개방송이 3일 정동아트홀에서 열렸다. 도현 스님(거룩한 만남 진행자)과 김병조(방송인)씨가 진행한 이날 행사는 영상으로 꾸민 거룩한 만남의 '여제와 오늘', 수혜자 정희진 양의 '사랑의 메시지' 낭송, 불자 가수 김종환과 장사익씨의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는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해 '불교의 자비와 사랑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공명사 주지 해성스님과 연화 꽃잎이회 회장 보명 스님이 5백번째의 수혜자인 남고흥군 거금도의 소년 소녀 가장 7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참석자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91년 4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은 10여년 동안 25여여인을 모금해 장애자 및 불우이웃 5백가구에 게 보시했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a.com)

#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 옛날 미수타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주문시 전구간격

기존은 2주전 주문 (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 휴식은 설악 현대 휘미리에서...

1,584만원 (23평형) 350만원에

※ 보증금 인성정보상 - LG외계 (주) 상원생 보험증권 발행

평형	총면적	특별가	사용면적	객실수	객실형태
23평형	1,584㎡	350만원	30㎡	477실	방2/거실1

특별가입 혜택

- 2000년 스키장 리조트 무료 / 할인권 증정
- 청량, 설악 VIP 초대권 증정
- 회원 입회비 / 연회비 평생 면제
- 공동 명의 구입 가능(카드 추가 발급)
- 10년간 정회원 이용
-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 및 연장 가능
- 양도 / 양수 / 매매 / 상속 가능
- 신용카드 정기 분할 가능 (12-18개월)

제주 2박 3일 무료이용권 증정 (항공권 별도)

온라인/카드 결제 안내  
- 국민은행 : 805-25-0012-481 (예금주: 주) 현대 휘미리 리조트

전국 23곳  
이용 현황

설악권/설악, 평창, 알프스, 경기권/양평, 용문산, 가평, 청평, 인천 중부권/천안, 도고, 충주, 남부권/울산, 남원, 지리산, 구례, 순천, 해남, 경주, 부산, 제주권/서귀포, 해외권/사이판

(주) 현대 휘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문의 안내 02) 3444-7580